

국내 중앙 일간지 환경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uracy of environmental reporting in Korean nine dailies

안종주

서울대 보건대학원

ABSTRACT

Generally, inaccurate reports on environmental issues occur due to various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way to enhance accuracy of environmental reporting. So the reporters' career and college major had been compared to the accuracy of their articles.

The by-lined environmental articles in nine dailies published in 1991 were check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accuracy rate in environmental articles was 54.2%. Inaccuracies appeared 1.7 times per an article, while the average frequency of inaccuracies in overall articles was 0.9 time. (2) Errors in the articles consist of 65.8% of subjective inaccuracies and 34.2% of objective inaccuracies. They derive from the false usage of terminology(15.8%), misquotation(14.5%), incorrect statistics(13%), exaggeration(13%), inaccurate title(7.9%), and false comparison(5%). (3) Inaccuracy rate by the type of articles was 66.7% in columns, 60% in feature stories, 54.5% in in-depth stories, 40.9% in straight news, respectively. (4) Inaccuracy rate by the specific field was shown 71.4% in environmental impacts. (5) According to the result of chi-square test analysi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inaccuracy rate and of subjective, and objective inaccuracies relevant to the period of reporters' career covering environmental reporting and the nature of articles, and college major.

I. 연구배경 및 목적

뉴스 보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 만약 독자로부터 기사의 정확성을 의심받게 되면 신문에 대한 신뢰성은 유지될 수 없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일간 신문에서의 환경 보도의 양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적인 지식이 다른 보도 분야에 견주어 많이 필요한 환경 보도 분야에서 우리나라 일간지 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사 및 기자의 특성과 기사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환경 보도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II. 연구방법

중앙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9개지)의 환경담당 기자가 기명기사로 보도한 1991년 1년 간의 환경 관련 기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1993년 3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92건의 환경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 대상 기사와 함께 부정확 기사 분석표를 나눠줘 오류의 정도를 평가토록 한 뒤 회수했다. 회수된 건수는 92개 가운데 83개로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83건의 환경 기사의 특성이 환경 보도의 정확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 분야, 기사 성격, 기자의 환경 분야 담당 기간, 기자의 환경 분야 전공 등 모두 4개의 기사 및 기자 특성을 정했다. 기사의 정확도 내용과 기사·기자의 특성과의 상관관계 검증 때의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은 $\alpha=0.05$ 로 잡았다.

III. 결과 및 고찰

총 83건의 조사대상 기사 중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정확한 기사는 38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해 정확도는 45.8%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기사 중 전체 오류 수는 76개로 조사대상기사 1건당 오류 수는 0.9개이며 부정확기사 1건당 오류 수는 1.7개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Berry 연구결과인 정확도 46.3%, Marshall의 연구결과인 정확도 46.5%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언론연구원의 1984년 연구결과인 60.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정재춘의 91년 환경기사 정확성 연구결과인 정확도 5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정확 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용어의 잘못이 1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용잘못 14.5%, 숫자·통계수치 오류가 13.0%,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뜻하는 객관적 부정확이 11.8%, 부정확한 제목 7.9%, 비교잘못 6.6% 등의 순이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객관적 부정확이 주관적 부정확보다 많은 것은 서로 일치하나 객관적 부정확 비율이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사 성격별 부정확 비율을 분석한 결과 칼럼기사가 66.7%로 가장 부정확했고 그 다음 기획기사 60.0%, 해설기사 54.5%, 스트레이트 기사 40.9% 순이었다. 기사 1건당 평균 오류 수는 기획·스트레이트 기사가 각 1개였으며 칼럼기사가 0.8개, 해설기사 0.7개로 분석됐다. 부정확기사 1건당 오류 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획기사 1.7개, 칼럼 1.2개 순이었다.

환경기술·소음·진동·환경교육 부문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의 기사부정확 비율이 1백%로 나타났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자연생태계·지구환경 문제를 한데 묶은 환경평가 분야가 71.45%의 부정확률을 보였다. 또 수질 분야는 52.2%, 폐기물 분야는 37.5%, 대기 분야는 35.7%의 부정확률을 각각 나타냈다. chi-square 검증으로 기자의 환경 전공 여부, 담당 기간, 기사 분야, 기사 성격과 기사의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1. 환경기사의 부정확도는 54.2%로 분석됐다. 부정확한 기사 1건당 부정확 개소는 1.7개이며 1건당 부정확 개소는 0.9개로 나타났다. 2. 부정확 기사의 오류를 내용별로 보면 객관적 부정확이 65.8%이었고, 주관적 부정확은 34.2%였다. 3. 기사의 성격별 부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칼럼이 66.7%이었고 기획기사 60.0%, 해설기사 54.5%, 스트레이트 기사 40.9%로 나타났다. 4. 기사 분야별 부정확도는 소음·진동·환경기술·환경교육 분야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100%이었으며 그 다음 환경평가 분야가 71.4%, 수질 분야 52.2%, 폐기물 분야 37.5%, 대기 분야 35.7% 순이었다. 5. 기자의 환경 분야 담당기간과 대학 환경 관련 전공 여부, 기사성격, 기사 분야 등에 따른 기사의 부정확도와 객·주관적인 부정확 내용을 chi-square 검증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환경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자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언론사 내부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사 점검과 오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